

1. Remember Who Brought You Here —

Devarim 26:1–11 The firstfruits declaration teaches that gratitude must include memory. Yisrael was commanded not merely to enjoy the Land but to remember the journey: oppression, crying out to YHWH, deliverance, and finally inheritance.

Mussar: Spiritual maturity remembers that today's blessings have a history. Gratitude protects the heart from the illusion that we produced everything by our own strength.

2. Holiness Must Reach the Hidden Places —

Devarim 26:12–19 The worshiper declares before YHWH that the sacred portion has been handled faithfully. Covenant faithfulness therefore includes what YHWH sees even when others do not.

Mussar: Integrity is obedience without an audience. The true measure of holiness is not merely what others observe but whether our private conduct agrees with our public confession.

3. Write the Torah Upon the Stones of Life —

Devarim 27 When Yisrael crosses the Yarden, Torah is to accompany them into the Land. Their new beginning cannot be separated from YHWH's instruction.

Mussar: Success is spiritually dangerous when advancement outruns obedience. Every new season should carry the Torah with it.

4. Blessing Is Connected to Listening —

Devarim 28:1–14 The blessings begin with diligent listening to the voice of YHWH. Biblical blessing is therefore not merely

1.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

데바림 26:1–11 첫 열매의 고백은 감사에는 반드시 기억이 포함되어야 함을 가르친다. 이스라엘은 단지 그 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압제와 부르짖음, 야훼의 구원, 그리고 마침내 받은 기업을 기억해야 했다. **무사르:** 영적 성숙은 오늘의 축복에 역사가 있음을 기억한다. 감사는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는 착각으로부터 마음을 지켜 준다.

2. 거룩함은 숨겨진 곳까지 이르러야 한다 — 데바림

26:12–19 예배자는 성별된 것을 신실하게 처리했다고 야훼 앞에서 고백한다. 그러므로 언약의 신실함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해도 야훼께서 보시는 영역까지 포함한다. **무사르:** 정직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이다. 거룩함의 참된 척도는 다른 사람이 보는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삶이 공개적인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가에 있다.

3. 삶의 돌 위에 토라를 기록하라 — 데바림 27 장

이스라엘이 야르덴을 건널 때 토라도 그들과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가야 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은 야훼의 가르침과 분리될 수 없었다. **무사르:** 발전이 순종보다 앞서갈 때 성공은 영적으로 위험해진다. 삶의 새로운 계절마다 토라를 함께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

4. 축복은 들음과 연결되어 있다 — 데바림 28:1–14

축복은 야훼의 음성을 부지런히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성경적인 축복은 단순히 좋은 것을 받는

receiving good things; it describes a life brought into alignment with YHWH.

Mussar: Before asking, “How can I be blessed?” ask, “What is YHWH asking me to hear and obey?”

- 5. Small Compromises Can Become Great Captivity — Devarim 28:15–68** The curses portray disobedience progressively unraveling life—confusion, loss, fear, exile, and bondage. What begins as refusal to listen eventually becomes captivity.

Mussar: Do not despise small acts of repentance. Correcting a small deviation today may prevent a much greater wandering tomorrow.

- 6. Experience Must Become Understanding — Devarim 29:1–9** Yisrael had seen extraordinary acts of YHWH, yet Moshe emphasizes the need for a heart that understands, eyes that truly see, and ears that truly hear.

Mussar: Witnessing miracles does not automatically transform character. What the eyes witness must descend into the heart and become faithful obedience.

- 7. Arise Because the Light Has Come — Yishayahu 60:1–3** “Arise, shine, for your light has come.” Darkness covers the earth, yet Yisrael is summoned to rise because the glory of YHWH appears upon her.

Mussar: We do not wait for darkness to disappear before becoming faithful. The proper response to darkness is to rise toward the light YHWH has already given.

것이 아니라 야훼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의미한다.

무사르: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는가?”라고 묻기 전에 “야훼께서 내가 무엇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 5. 작은 타협이 큰 속박으로 자랄 수 있다 — 데바림**

28:15–68 저주는 불순종이 점차 삶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 준다. 혼란에서 시작하여 상실과 두려움, 추방과 속박으로 이어진다. 듣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시작한 일이 결국 포로 됨으로 발전한다.

무사르: 작은 회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오늘의 작은 이탈을 바로잡는 것이 내일의 더 큰 방황을 막을 수 있다.

- 6. 경험은 깨달음이 되어야 한다 — 데바림 29:1–9**

이스라엘은 야훼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보았지만 Moshe 는 깨닫는 마음과 참으로 보는 눈과 듣는 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무사르:** 기적을 보는 것 자체가 성품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눈으로 본 것이 마음으로 내려가 신실한 순종이 되어야 한다.

- 7. 빛이 왔으므로 일어나라 — 이사야후 60:1–3**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어둠이 땅을 덮지만 이스라엘은 야훼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도록 부름받는다. **무사르:**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후 신실해지는 것이 아니다. 어둠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야훼께서 이미 주신 빛을 향하여 일어나는 것이다.

8. Restoration Reveals YHWH's Purpose —

Yishayahu 60:4–22 Yishayahu pictures scattered children returning, nations coming toward the light, ruined places being rebuilt, and mourning giving way to restoration. YHWH's work transforms what appeared abandoned.

Mussar: Never judge YHWH's finished work by the appearance of an unfinished season. What presently looks desolate may yet become a testimony to His faithfulness.

9. Learn the Fig Tree — Mattiyahu 24:29–35

Yehoshua tells his disciples to learn from the fig tree. When its branch becomes tender and puts forth leaves, one recognizes that summer is near.

Mussar: Spiritual watchfulness means learning to recognize what is happening without becoming consumed by speculation. The watchful person observes, remembers Yehoshua's words, and remains faithful.

10. No One Knows the Day — Mattiyahu 24:36–

42 The generation of Noach continued ordinary life until the flood came. Yehoshua therefore concludes,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what hour your Master is coming.”**

Mussar: Readiness is not predicting the day; readiness is living today so that His coming does not find us spiritually asleep.

8. 회복은 야훼의 목적을 드러낸다 — 이사야후 60:4–

22 이사야후는 흩어진 자녀들이 돌아오고, 민족들이 빛으로 나아오며, 황폐한 곳이 다시 세워지고, 슬픔이 회복으로 바뀌는 모습을 그린다. 야훼의 역사는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변화시킨다.

무사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계절의 모습으로 야훼의 완성된 역사를 판단하지 말라. 지금 황폐해 보이는 것이 장차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언할 수 있다.

9. 무화과나무에게서 배우라 — 마태야후 24:29–35

Yehoshua 께서는 제자들에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신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 수 있다. **무사르:** 영적 깨어 있음은 일어나는 일을 분별하되 추측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깨어 있는 사람은 살피고, Yehoshua 의 말씀을 기억하며, 신실함을 유지한다.

10. 그 날을 아는 사람은 없다 — 마태야후 24:36–42

Noach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가 임할 때까지 일상생활을 계속했다. 그러므로 Yehoshua 께서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신다. **무사르:** 준비한다는 것은 그 날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그분의 오심이 우리를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발견하지 않도록 오늘을 사는 것이다.

Core Mussar — Final Synthesis

These three readings share a single movement:

Remember → Listen → Walk → Arise → Watch.

Devarim warns Yisrael not to forget YHWH after entering blessing. Yishayahu calls a people surrounded by darkness to arise because YHWH's light has come. Mattiyahu calls the disciples to remain awake because the exact hour is unknown.

The greatest danger in Devarim is **forgetfulness**. The great command of Yishayahu is **arise**. The great command of Mattiyahu is **watch**. Together they teach that covenant faithfulness is practiced in the present moment.

Mussar: Do not wait for tomorrow to become the person YHWH is calling you to be. Remember His goodness yesterday, listen to His voice today, walk faithfully in what He has given you, rise when darkness surrounds you, and remain watchful for what is still to come.

이 세 본문은 하나의 영적 흐름을 공유한다.

기억하라 → 들으라 → 행하라 → 일어나라 → 깨어 있으라. 데바림은 이스라엘에게 축복 가운데 들어간 후 야훼를 잊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사야휴는 어둠에 둘러싸인 백성에게 야훼의 빛이 왔으므로 일어나라고 부른다. 마태야후는 정확한 때를 알 수 없으므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가르친다.

데바림에서 가장 큰 위험은 **망각**이다. 이사야휴의 큰 명령은 **일어나라**이다. 마태야후의 큰 명령은 **깨어 있으라**이다. 이 모든 말씀은 언약의 신실함이 바로 현재의 순간에 실천되어야 함을 가르친다.

무사르: 야훼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내일까지 기다리지 말라. 어제 베푸신 그분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맡겨진 길을 신실하게 걷고, 어둠 가운데서도 일어나며, 앞으로 올 것을 바라보며 깨어 있으라.